

統一情勢分析 2004-01

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

2004. 1

박형중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전현준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이교덕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최진욱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
통 일 연 구 원

<요 약>

I. 일반적 특징

- 2004년 신년 공동사설은 지난 몇 년의 신년 공동사설과 모든 부문에서 매우 유사
- 전체 논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 보다는 다소 수동적이며 관망하는 느낌

II. 분야별 분석과 전망

1. 정치

-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의 강조로 군의 업적을 찬양하고 군과 관련된 미담을 선전하면서 ‘혁명적 군인정신’을 전체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
- 정치사상, 반제군사, 경제과학 등 ‘3대전선’ 중 정치·군사가 2개 부문을 차지, 경제보다는 정치·군사 중심의 국정 운영 예고
- 김일성·김정일과 관련한 ‘꺾어지는 해’를 강조하고 있는 바, 이를 기념하기 위한 ‘새로운 정책’ 방향 제시 가능성
 - 2004년은 김일성 사망 10주년, 김정일 당사업 시작 40돌임을 강조
 - 2005년도 당창건 60돌, 해방 60돌인 2005년을 ‘성대히 기념’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의 발전 시도

- 이와 관련, 해외자본 유치의 선행조건인 핵문제 해결을 위한 ‘전향적 조치’ 가능성

2. 경제

- 전반적으로 2003년도와 유사한 양상의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나,
 - 2004년도에 채취, 건재, 화학, 기계, 임업 등을 최초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내부 경제정책이 보다 다원적 방향에서 진행될 가능성
- 경제관리에서는 ‘내각의 권위 고양’과 ‘실리추구’ 원칙을 강조했지만, 전반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약한 것으로 보아,
 - 2004년에는 7월조치 이후의 후속 개혁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상황 개선에 주력하는 선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
 - 핵문제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, 개방에의 적극적 의지를 시사하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

3. 대외

- 대외관계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미관계에서는 미국의 태도를 당분간 주시할 것으로 예상
 - 일단 6자회담의 개최를 수용할 것이나 6자회담에서의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미국 대선의 향방을 지켜볼 가능성
- 미국의 대선 전망을 보아가되, 부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, 대타협을 제시할 가능성

- 부시 재선 후에는 상황이 북한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

4. 대남

- 북한의 가장 중요한 대미 지렛대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며, 남측으로부터 지원 증대를 노리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펼 것으로 예상.
 - 개성공단, 경의선, 동해선, 이산가족 상봉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
 - 6.15, 추석 등에 이벤트성 행사

- 목 차 -

I. 일반적 특징	1
II. 분야별 분석	2
1. 정치	2
2. 경제	3
3. 대남·대외	5
III. 분야별 전망	6
1. 정치	6
2. 경제	8
3. 대외	8
4. 대남	9

I. 일반적 특징

- 북한의 노동신문은 2002년 1월 4일부터 공동사설의 핵심 내용을 분야별로 알기 쉽게 소개하기 시작
 - ‘올해 공동사설의 기본체계’란 제목으로 공동사설을 ①지난 해에 이룩한 성과와 그 요인 ②올해의 투쟁과업과 그 실행방도 ③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업으로 나누어 분석

- 「노동신문」, 「조선인민군」, 「청년전위」의 2004년도 신년 공동사설 “당의 영도 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 내이자”는 지난 몇 년의 신년 공동사설과 모든 부문에서 매우 유사
 - 정치사상, 반제군사, 경제과학 등 ‘3대 전선에서의 총공세’도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

- 전체 논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 보다는 다소 수동적이며 관망하는 느낌
 - “올해의 총공세는 다음해의 뜻 깊은 명절들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책임적인 투쟁”이고 “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기세 드높이 마중해 나가야 한다”고 하여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비중을 부여
 - “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일관”하지만 “미국의 강경정책에는 언제나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”이라고 함으로써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

II. 분야별 분석

1. 정치

- ‘수령’ 김일성의 위대성 강조 및 김일성 ‘유훈’ 지속 천명
 - “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 내어 나가야 할 신성한 의무”

- ‘수령 후계자’ 김정일의 정치·경제·군사·외교 등 제 부문에서의 탁월한 능력 선전
 - 김일성 사후 10년간 김정일이 ‘고난의 행군’을 통해 ‘엄혹한’ 현실을 타개, ‘군대와 인민’의 절대적 신뢰 획득
 - 이의 공로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 시 국방위원장 재추대

- ‘선군 정치’ 성과에 대한 찬양
 - ‘당의 령도’ 보다는 ‘군대와 인민’을 자주 강조
 - 군대의 역할과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
 - ‘3대전선’ 관철 방식으로 ‘선군정치방식’ 제시

- ‘꺾어지는 해’에 대한 강조
 - 2004년은 김일성 사후 10년, 김정일 당사업 시작 40돌, 주체사상화강령선포 30돌,
 - 2005년은 당창건 60돌, 해방 60돌

- 제한적이거나 당 및 내각의 역할 강조
 - ‘3대전선’ 승리 담보는 ‘당의 령도 업적 지침’을 통해 전개
 - 내각의 역할 제고

- ‘훌륭한 인재’ 양성 강조
 - ‘강성대국’ 건설에 필요한 실력있는 ‘신세대’로의 세대교체

2. 경제

- 경제과학전선을 정치사상전선, 반제군사전선과 함께 3대전선으로 설정
 - 2003년에 ‘국방공업우선’론을 제기했으나, 성과보고에는 이에 관한 내용 부재
- 2004년 경제정책 총괄 방향은 ‘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 보장’과 ‘인민생활보장’의 양대 요구를 동시에 설정
 - 2003년도에는 ‘국방공업 중시론’을
 - 2002년도에는 ‘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 것’을 총괄방향으로 제시
- 2004년도 경제정책 방향제시에서는 ‘국방공업우선’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,
 - 3대전선 중의 하나인 ‘반제군사전선’ 즉 인민군대와 관련된 부문에서 ‘국방공업 발전을 제1차적 전략적 과업’으로 제시
- 주요 관심분야로서 전년도와 다름없이 ‘전력, 석탄, 금속공업과 철도 운수’를 거론했으나, 전력부문과 철도운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언급함이 특징
 - 북한은 에너지 분야에서 최근년 계속적으로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과 석탄 증산을 강조해 왔으나,
 - 2004년도 신년사에서는 ‘화력발전소를 개건보수할 것’을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

- 북한은 이밖에도 ‘채취, 화학, 기계, 건재, 임업’ 등에 대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따로 언급한 것은 1995년 이래 최초
 - 경제사정의 완화로 보다 많은 부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시사

-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관한 정책은 대동소이하지만, 농업부문에서 ‘콩농사와 과수업 발전’ ‘축산기지와 닭공장’을 부가적으로 언급
 -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부문을 언급한 이후,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식량사정의 완화를 반영

- 경제관리에 관해서는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‘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한다’라는 원칙을 반복한 이외에, 2004년에는 ‘내각의 권위를 높일 것’을 부가
 - 2002년에는 ‘계획경제관리원칙 관철, 중앙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아랫단위의 창발성’을 강조했으나, 2003년과 2004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부재
 - 2001년과 2003년은 ‘설비의 현대화’를 강조했으나, 2004년에는 ‘예비와 가능성의 동원을 통한 생산의 정상화,’ ‘있는 생산토대의 효과적 이용’을 강조

- 경제사업에서 ‘내각의 권위를 높일 것’과 모든 단위에서 ‘당,행정의 일치’를 확고히 보장할 것을 언급했음에 주목할 필요
 - 경제 및 행정에서 내각 및 행정체통의 권한 강화 시사
 - 2002년에는 ‘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서 3위1체를 확고히 보장할 것’을 요구

- 2003년에는 ‘혁명의 수도 평양을 잘 꾸릴 것’을 말했는데, 2004년에

는 나아가서 ‘도, 시, 군 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할 것’을 첨가

- 2002년과 2003년 ‘정보기술과 정보산업’ 등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으나, 2004년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부재
- 문화부문에 관해서는 2003년도부터 언급되고 있는데, 2003년도에 ‘사회주의 문화’와 ‘인민군대의 문화생활기풍’을 중심으로 거론
 - 2004년에는 ‘혁명적이며 낙천적인 문화생활기풍’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

3. 대남·대외

- 대외·대남 분야는 2003년 신년공동사설과 유사
 - 2003년 “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또 다시 침예한 핵위기가 조성”되었으나,
 - “외세의 간섭과 반통일 사대매국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되었다”고 평가
- 2003년과 유사하면서도 ‘반미 자주’가 더욱 비장감을 노정
 - 2003년 ‘사생결단의 의지’로 미국의 압력을 이겨냈다고 평가
- 2003년의 교훈은 ‘반미 자주 민족공조’만이 살길이라는 것이며, 2004년에는 ‘우리 민족 제일주의’를 더욱 강하게 밀어 붙일 것을 강조
 - 6.15공동선언 강조
- 핵문제의 전개를 ‘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’로 규정하고, 미국이

조선 민족의 공동의 책임을 부각

- 한반도 위기의 책임이 북한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의 남한내 논란에 대해, “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의존하여야 전쟁위험도 모면하고 경제적 안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한 망상”이라고 비판

○북한의 선군정치를 남한에 확대 적용하려고 시도하면서, 반미 단결을 선동

- “선군정치는 참다운 애국애족애민의 정치이다.”
- “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선군정치를 한결같이..”

Ⅲ. 분야별 전망

1. 정치

○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의 강조로 군의 업적을 찬양하고 군과 관련된 미담을 선전하면서 ‘혁명적 군인정신’을 전체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

- 군대의 전투력과 무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대식으로 사회기강을 잡아나가면서 군을 따라 배우는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으로 판단

○김일성 ‘유훈’ 관철을 위해 김정일 중심의 정치사상적 결속 지속 제시

-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‘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’

○정치사상, 반제군사, 경제과학 등 ‘3대전선’ 중 정치·군사가 2개 부문

을 차지, 경제보다는 정치·군사 중심의 국정 운영 예고

- 2004년을 1974년부터 시작된 ‘온 사회의 주체사상화’ 시작 30돌로 규정, 주체사상 지속 시사
- ‘선군정치’ 지속 시사 및 주민의 ‘군인품성 따라배우기’ 강조

○ 김일성·김정일과 관련한 ‘꺾어지는 해’를 강조하고 있는 바, 이를 기념하기 위한 ‘새로운 정책’ 방향 제시 가능성

- 2004년은 김일성 사망 10주년, 김정일 당사업 시작 40돌임을 강조
- 당창건 60돌, 해방 60돌인 2005년을 ‘성대히 기념’하기 위해 각 부면에서의 발전 시도
- 이와 관련, 해외자본 유치의 선행조건인 핵문제 해결을 위한 ‘전향적 조치’ 가능성

○ ‘당의 령도’ 및 ‘내각의 역할’ 강조는 ‘선군정치’를 기조로 하되, 당과 내각의 역할을 정상화할 의도일 가능성

- 당의 말단조직인 ‘세포’의 정상화 및 당원 사기 진작책 제시
- 지배인, 공장장 등 내각소속 관리들의 권한과 책임 확대

○ 당·정·군 제 분야에서의 세대교체 가속화

- ‘로쇠’의 퇴진과 ‘강성대국’ 건설에 필요한 실력있는 중견 관료들의 약진

2. 경제

- 전반적으로 2003년도와 유사한 양상의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나,
 - 2004년도에 채취, 건재, 화학, 기계, 임업 등을 최초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내부 경제정책이 보다 다원적 방향에서 진행될 가능성

- 경제관리에서는 ‘내각의 권위 고양’과 ‘실리추구’ 원칙을 강조했지만, 전반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약한 것으로 보아,
 - 7월조치이후의 후속 개혁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상황 개선에 주력하는 선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
 - 핵문제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, 개방에의 적극적 의지를 시사하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

- 2004 곡물연도(2003.11~2004.10) 식량 수확은 2003 곡물연도(2002.11~2003.10)의 413만톤을 상회하는 425만톤으로 예상
 - 만약 한국의 대북 곡물 지원(옥수수 10만톤)과 차관(국내쌀 40만톤)이 2003년도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, 2004년도 내부 경제사정은 200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
 - 핵문제 때문에 국제지원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3. 대외

- 대외적으로는 “자주, 평화, 친선의 리념밑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”이라는 언급에 비추어
 - 대외관계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미관계에서는 미국의 태도를 당분간 주시할 것으로 예상
 - 일단 6자회담의 개최를 수용할 것이나 6자회담에서의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미국 대선의 향방을 지켜볼

가능성

- 대남정책에서는 2003년의 기조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이나 PSI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남협력을 강화하고자 할 가능성
 - 그러나 북·미관계가 악화되고 남북경협이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경우 '민족공조'의 배신으로 대남비방을 하면서 대남관계를 폐쇄할 것으로 예상
- 미국의 대북 입장이 강경하면서도 본격적인 대북 협상을 대선이후로 미루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
 -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'정권 교체' 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, 금년 내에 결판을 지으려는 태도
 - 미국이 대북 군사 대결을 피하고 있다는 데 자신감
- 미국의 대선 전망을 보아가되, 부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, 대타협을 제시할 가능성
 - 부시 재선 후에는 상황이 북한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

4. 대남

- 북한의 가장 중요한 대미 지렛대는 남북관계의 진전인 바,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펼 것으로 예상
 - 개성공단, 경의선, 동해선, 이산가족 상봉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
 - 6.15, 추석 등에 이벤트성 행사

-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상당한 자신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,
 - 북한 방문도 상당히 개방할 것으로 예상

- 4월 총선에 맞추어 남한 내 진보 세력들을 돕고 보수 세력을 위축 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
 - 3.1절 공동 행사
 - 김영남 등 고위인사 서울 방문
 - 총리급 회담

- 북한 편들기 주의
 - 북한이 대미협상에 착수하게 되면 남한은 '입지 축소' 가능성
 - 미국이 한국의 입장 봐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여야 공히 북한의 남한 정치 간섭 불가 표명
 - 남북 공동행사에 여야 공동 합의 공동참여 노력